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더 소울

The Soul. 소울(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종교NEWS

고성발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활동

“믿음 속에 화합을 일구는 소통의 신앙,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을 거듭나게 한다”



농촌지역 무더위 시원하게 식혀준 봉사단

서울 성민교회 봉사단 130명 문암1리서 봉사활동 ... 새문교회 성석규 목사 주선

지루한 장마와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을 찾아 삼복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준 봉사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성민교회(목사 한홍신) 봉사단원 130명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주의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죽왕면 문암1리 마을의 혼자 사는 노인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11가구를 찾아 도배와 장판교체, 전기 배선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침술 봉사 등 한방치료활동과 자장면 점심식사 제공도 했다. 11일 오후 8시에는 죽왕면 백도해변 백사장에서 마을 주민을 위한 위안공연과 노래자랑도 펼쳐 무더운 한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줬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문암1리 새문교회 성석규 목사의 주선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 성민교회 봉사단원들이 죽왕면 기초생활수급자 윤순봉씨(80세, 문암1리) 집안 도배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에도 3일간 서울 소재 새문안교회와 성민교회 봉사단원 30여명이 경로잔치를 비롯해 이·미용봉사, 의료봉사, 마을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문암1리 정광석 이장은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주는 단원들이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도 혼자 사는 노인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간성감리교회 창립 110주년 감사예배



영동지역 최초의 교회인 간성감리교회(담임목사 차준만) 창립 110주년 감사예배가 지난달 17일 고성을 비롯한 설악권 주요 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성감리교회는 1901년 7월17일 미남감리회 선교사 하디 목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후 양양과 강릉순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원광연 기자

종교/칼럼



전영섭 대진감리교회 목사

성서에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기쁨과 희락)’이란 동산에 두셨다고 말 한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참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소였다.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실낙원 하는 불행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만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이다.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 ‘3不 시대’라 하였다. 사회구성원 서로가 믿지 못하는不信과 믿지 못함으로 不통하고, 통하지 아니 함으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는 不滿足의 시대라고 말한다. ‘3不시대’가 가져온 사회적 현상은 알콜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게임중독, 자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지식과 정보화 사회 속에서 무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더 이상 똑똑한 사람이 주도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I.Q (intelligence quotient)시대가 이미 아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정지수(E.Q : Emotion Quotient)가 높은 사람이 환영받는 시대이며, 가정이나

조화를 이루는 사람

직장이나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관계의 지수 (N.Q : Network Quotient)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오늘의 사회는 독불장군처럼 자기중심 이기적인 자기주도의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한 사람이 5.5인과 관계를 하면 세계와 통한다고 한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일반 직장인 80%의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실패함은 동료와의 인간관계의 실패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잃는 것도 ‘인간관계 문제’ [a relational issue]라고 한다. 이처럼 관계의 문제는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신약성서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peace maker)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부조화를 이룬 세상에 화평을 만드시기 위해 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 주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다리를 놓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와 같이 조화를 이룸에는 희생이란 과정이 필요하다.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면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며 지구상 마지막 분단國, 분단道, 분단郡에 위치한 고성군의 성도들과 군민들이 양보와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 화평과 조화를 만들어 가는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희구한다.